

시 부문 심사평*

고재중

응모한 작품의 절반가량은 아직도 영탄사를 남발하는 감상주의에 빠진 작품들이라서 아쉬웠고, 나머지 작품 중 또 절반은 5월에 대한 상투적 접근이 너무도 지겨웠다.

다행히 10명 정도의 작품이 오월정신을 자기 삶속에 내재화시킴과 아울러 일정정도의 형상화 능력을 보여 다행이었다. '공명'등의 작품을 낸 정우수는 일단 시가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어 호감이 갔으나 너무 소품인 게 흠이었다. 당선작 '동면하지 않는 도마뱀'은 삶의 치열성과 우화능력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지적되었다.